2026년 11월 10일 공보 2026-11-13호

이 자료는 11월 11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11월 10일 19: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보도자료

제 목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국제결제은행(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의장으로 선임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국제결제은행 세계경제회의(BIS GEM)에서 회원국 협의를 거쳐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의장**으로 선임되었음*

* 신 총재의 의장 임기는 2026년 11월 1일부터 3년간임

ㅇ **CPMI**는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제정기구**(global standard setter)이자 BIS 총재회의 산하 중앙은행간 핵심 협의체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시장인프라가 준수해야 할 최상위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으로 **제정**한 바 있음

□ **신 총재**의 **CPMI 의장 선임**은 **非미국·유럽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최초**임

ㅇ 이는 신 총재의 국제적 명성과 신망에 더해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토큰화 등 미래 지급결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온 점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

□ 이번 신 총재의 의장 선임을 계기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분야 **국제기준 수립**을 **주도**하면서 글로벌 금융 커뮤니티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또한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급결제시스템 혁신사업**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문의처 : 금융결제국 결제정책부장 박준홍
Tel : 750-6614 Fax : 750-6658 E-mail : payment@bok.or.kr
공보관 : Tel : 759-4022, 401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붙임 1)

역대「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의장 명단

기간	CPMI 의장
현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Governor, Bank of Korea)**
2023 - 2026	Fabio Panetta **이탈리아중앙은행** 총재 (Governor, Bank of Italy)
2020 - 2023	Sir Jon Cunliffe **영란은행** 부총재 (Deputy Governor, Bank of England)
2013 - 2019	Benoît Cœuré **ECB** 집행이사 (Member, Executive Board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2012 - 2013	Paul Tucker **영란은행** 부총재 (Deputy Governor, Bank of England)
2009 - 2012	William C. Dudley 美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President,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2005 - 2009	Timothy Geithner 美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President,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2000 - 2005	Tommaso Padoa-Schioppa **ECB** 집행이사 (Member, Executive Board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1998 - 2000	Wendelin Hartmann **독일연방은행** 이사 (Member, the Directorate of the Deutsche Bundesbank)
1994 - 1998	William McDonough 美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President,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1990 - 1994	Wayne Angell 美**연준** 이사 (Member,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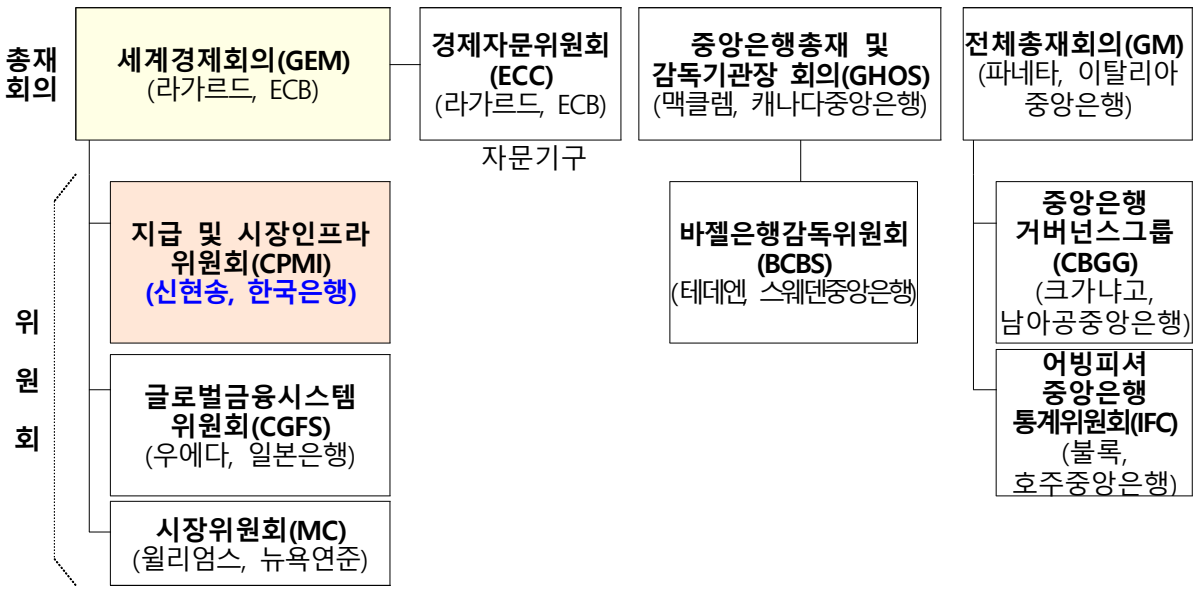
(붙임 2)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BIS 총재회의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1](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는 2026년 9월 현재 미 연준, ECB, 영란은행 등 주요 28개 중앙은행[2]이 회원기관으로 가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09년 7월부터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 의장은 BIS 총재회의[3]에서 선출되며, Timothy Geithner 美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2005~2009), Paul Tucker 영란은행 부총재(2012~2013) 등 미·영국, 유럽의 선진국 중앙은행 고위 임원이 지금까지 의장직을 수행해 왔다.

BIS 총재회의 및 위원회 개요[1]



주: 1) 개별 회의 및 위원회 의장은 모두 중앙은행 총재로 하단 괄호 안에 기재

동 위원회는 지급·청산·결제 및 여타 지급결제제도 관련 국제기준 제정 및 이행상황 점검, 전 세계 지급결제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정책·운영 협력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례회의(연 3회)를 소집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을 둘러싼 최근 글로벌 환경

---

1) 동 위원회의 전신은 1990년 설립된 「지급결제제도 위원회(CPS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이다. CPSS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각종 원칙과 권고를 발표하고 조사연구 활동을 담당하였다. 이후 2014년 9월에 국제기준 제정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이 위원회 책무(mandate)로 추가됨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면서 명칭을 현재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로 변경하였다.

2)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유로지역(ECB),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미국(연준이사회, 뉴욕 연준)의 중앙은행이 가입해있다.

3) 30개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세계경제회의(Global Economy Meeting)를 말한다.

변화 상황을 공유하며 중앙은행 간 정책공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CPMI가 대외 공표하는 모든 국제기준 또는 권고와 각종 조사연구 보고서는 사전에 세계경제회의(GEM) 승인을 취득한다.

먼저, CPMI는 지급결제제도 분야의 최상위 국제협의체로서 국제기준 및 권고를 제정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국제기준 정비 필요성이 대두하자 2012년 4월에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으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을 제정하여 금융시장인프라가 준수해야 할 24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FMI 사이버복원력 지침」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후속지침도 발표하였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관련 국제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하고 있다. 2025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서 가져야 할 핵심 조건인 단일성(singleness)[4], 탄력성, 무결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5]. 아울러 화폐·금융자산의 토큰화를 정의하고 토큰화 환경에서 중앙은행 화폐의 역할 및 지급결제시스템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을 제안[6]하였다. 그리고 토큰화된 화폐와 자산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공통 플랫폼 상에서 발행·유통되는 새로운 금융시장인프라인 통합원장(unified ledger)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여 각국 중앙은행 토큰화 실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7]하였다.

한국은행 직원들은 현재 CPMI 정례회의는 물론 위원회 산하 각종 실무그룹에 적극 참여하여 지급결제제도 관련 국제기준 제정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관련 조사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미래 지급결제제도 워킹그룹(Future of Payments 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디지털화·토큰화 등으로 변화되는 지급결제 환경에서 중앙은행 화폐의 역할 등을 검토하는 작업[8]을 타국 중앙은행 직원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

4) 동일 화폐 단위가 언제 어디서나 같은 가치로 교환될 수 있는 성질
5) BIS 2025 Annual Economic Report, Ⅲ. The next-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6) Tokenisation in the context of money and other assets: concepts and implications for central banks(2024.10)
7) 신현송 총재가 BIS 경제고문 겸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던 2023.6월, BIS Annual Economic Report를 통해 '통합원장' 개념을 차세대 통화·금융시스템의 핵심 청사진으로 공식 발표하였다.
8) '미래 지급결제제도 워킹그룹'은 2026.10월말 디지털화·토큰화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따른 중앙은행 화폐의 역할과 중앙은행의 정책적 대응방향 등을 담은 보고서("The roles of central banks and central bank money in the evolving system")를 발간하였다.

(붙임 3)

최근 5년간 CPMI의 주요 발간 보고서

기간	최종 발간 보고서
2026	FMIs' reliance on third-party service providers: challenges and risks (2026.9) : 클라우드 등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FMI 의존도 증가에 따른 운영·집중·사이버·복원력 위험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논의
	The roles of central banks and central bank money in the evolving system (2026.10) : 토큰화·디지털화 등 새로운 지급결제 환경에서 중앙은행 화폐가 신뢰의 준거(anchor)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
2025	Streamlining variation margin in centrally cleared markets - examples of effective practices (2025.1) : 중앙청산시장의 변동증거금(VM) 징수·지급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모범 관행을 제시하고 시장 스트레스 시 급격한 VM 수요에 대응하여 중앙거래당사자(CCP)의 복원력 제고를 도모
	Implementation monitoring of the PFMI: Level 3 assessment on general business risks (2025.11) : 27개국 34개 FMI의 일반사업위험(General Business Risk)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FMI의 재무적 복원력 확보를 위해 일반사업위험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시
2024	Tokenisation in the context of money and other assets: concepts and implications for central banks (2024.10) : 화폐·금융자산의 토큰화와 프로그램 가능한 플랫폼이 금융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토큰화 환경에서 중앙은행 화폐의 역할, 도매결제시스템 설계, 감독 및 통화정책 측면의 고려사항을 제시
	Linking fast payment systems across borders: governance and oversight (2024.10) :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시 필요한 거버넌스 및 감독체계를 검토
2023	Considerations for the use of stablecoin arrangements in cross-border payments (2023.10) :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지급결제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 새로운 기술 활용 시에도 안전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감독체계의 중요성을 강조
2022	Application of the PFMI to stablecoin arrangements (2022.7) :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 체계는 금융시장인프라(FMI)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보고 PFMI 적용을 확인. 그리고 DLT, 탈중앙화 거버넌스, 비은행 결제자산 등 기존 FMI와 다른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시